활로 못찾는 기업도시

[2] 부진한 투자유치

수익분석 없는 장밋빛 청사진 국내외 투자자 관심 못 끌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조성사업과 무안기업도시 추진이 더딘 것은 막대한 사업 투자금 확보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두 사업에 대한 확실한 수익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바람에 양대 프로젝트는 정상궤도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J프로젝트, 관장 법인 설립도 못해 무안기업도시, 개발축소·일정 차질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 3천만여평에 추진되고 있는 J프로젝트에는 모두 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전체 사업을 관장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다.

당초 전남도는 올 상반기까지 1조 5천억원의 자본금으로 J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특수목적법인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27일 도의회의 승인으로 투자사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동원해 3개월동안 SPC자본금 유치를 추진했으나 성과는 전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을 6천억원으로 대폭 낮춰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후 내년 초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출발단계부터 투자금 확보라는 난제에 막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안군 무안읍·청계·현경·망운면 일원 1천220만여평에 2조 7천37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인구 24만명의 첨단산업 및 물류, 휴양 주거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무안기업도시 개발계획 역시 초기 투자유치 저조로 미진한 상태다.

지난 2005년 11월 국내 출자목표액 1천400억원 중 초기출자금 171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인 (주)무안기업도시개발이 설립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중합작 특수법인이 출자목표액 1천 540억원 중 초기출자액 20억원을 확보해 출범했지만 이후 추진과정이 여의치 않다.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출자액 786억원에 대한 자국 내 심의가 미뤄지면서 전반적인 부진을 불러오고 있다.

무안기업도시는 정부의 최초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8월말까지 국내 출자금(1천400억원)과 한중 특수법인 투자금(1천540억원)을 포함해 모두 2천94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목표 달성은 일단 무산됐다. 무안기업도시 측은 3일 현재 확보된 국내투자금 800억원을 기초로 9월말까지 국내투자 개발면적 620만평 가운데 520만평에 대해 먼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후 중국측의 투자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무안기업도시는 8월까지 건설교통부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0월까지 보상액 결정과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착수하는 등 2007년 4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최종선 전남도 기업도시 과장은 "J프로젝트의 경우 구체화된 수익구조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투자 유치대상인 기간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계획 중 간용역이 보고됐고 이에 따른 투자분석이 가능해진만큼 연말까지 자본금 6천억원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J프로젝트 예정지역인 해남군 산이면 일대 간척지. 3천만평의 간척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J프로젝트의 1단계사업인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바다이야기 심의 부실 덩어리"

감사원 "소스코드 조사·사용설명서 심사 누락" 검찰 '정치권 로비' 의혹 브로커·보좌관 수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1.1 변형 버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새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누락시키고 소스코드(source code) 조사도 하지 않는 등 곳곳에서 부실심사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 임종빈 제2사무차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비감사 결과 '바다이야기'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감독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예비감사를 통해 연타, 누적 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득기준 고시가 지난해 2월 4일 영등위의 등급분류 세부규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문구가 미세하게 조정된 점을 주목해 본감사 과정에서 로비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영등위가 지난해 4월7일 '바다이야기' 1.1 변형 기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임기의 '블랙박스' 격인 '소스코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심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사실상의 규제완화라는데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본감사에서 지정제 도입 배경 및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이번 사건에 정치권 브로커 3~4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2~3명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경쟁업체 등에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순한 소문 수준에 불과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단계는 아니나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진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품권 인증제가 도입된 2004년 12월, 지정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각각 발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했던 60여 업체 대표와 실무자를 최근 한차례씩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당사자들의 주변 정황 캐기나 계좌 추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한 상품권 발행업체가 지난해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 측에 8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사원이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성인게임 실태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4일 오전 세종로 문화관광부에서 감사원 관계자들이 게임정책을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스코드란=게임 등 소프트웨어(SW)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기본 설계도에 해당한다. SW를 개발할 때 인간이 읽고 쓸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우선 소스코드를 작성한 뒤 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2진수로 이뤄진 기계어로 번역하게 된다. 통상 기계어는 인간이 해독할 수 없어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한 외부인은 SW의 상세한 설계도를 파악할 수 없다.

게임박람회 참석 김재홍·박형준의원

우리당, 국회 윤리위 제소키로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우리당 김재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의 협찬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게임박람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회의를 열어 당 사행산업대책위의 1차 진상보고를 듣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문광위 차원의 공식출장이 아닌 것을 확인됐고, 게임협회 비용으로 해외 시찰을 한 것이 밝혀진 만큼 국 차원의 윤리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또 "박 의원의 억대 협찬 문제는 외유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당에서 조사후 추가로 윤리위에 제소할 지, 검찰에 고발할 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 문광위 간사인 김재홍 의원이 더이상 문광위에 머무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스스로 상임위 교체를 요청함에 따라 김 의원을 환경노동위로 보임했고, 또 김 의원을 당 윤리위에서 제외하고 후임에 이경숙 의원을 선임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민주당 "정동채 의원 사퇴하라"

김재홍·박형준의원 사퇴도 요구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파문과 관련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행성 성인 오락 게임이 성행할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광주 서을)과 게임관련협회 지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김재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국회의장 직권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구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당시 주무 장관이던 정동채 의원은 이번 파문에 대해 진상을 밝힌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국회의원이 상임위 관련업체의 돈으로 외국을 다녀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해당의원들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서민의 쌈짓돈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바다이야기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만 기자 man21/kwangju.co.kr